

학교도서관을 위한 소설장서의 장르 분류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enre Classification for Fictions in School Libraries

박 은 희 (Eunhee Park)**

이 미 화 (Mihwa Lee)***

초 록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차지하는 주제는 문학의 소설이며, 소설장서를 접근하기 위한 KDC의 현행 분류체계는 학교도서관에서 소설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장르 분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국립 및 공공도서관의 소설장서 분류 현황을 조사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의 소설장서 분류체계와 KDC와 DDC의 소설 분류표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소설장서의 장르 분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소설장서를 위한 장르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 소설을 위한 장르 용어를 수집하고, 이 중에서 14개의 장르 표목을 도출하여 영어 표목의 두문자를 분류기호로 할당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장르분류표의 적용 방안으로 중등학교 도서관의 KDC 번호를 대상으로 KDC와 혼합 적용, 장르기호를 선치해 적용, 장르기호만 적용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DC에서 계층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설장서의 장르 분류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find a genre classification by reflecting the needs of users since a subject that makes up the highest proportion of books in the school library is fictions in literature and KDC cannot accept user's need to access fiction in school libraries. This study suggested the genre classification for fictions in school libraries through surveying classification of fictions in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and comparing between classification systems of online/offline bookstores, KDC and DDC. For developing the genre classification system, it is to collect genre terms for fictions, to extract 14 genre headings among them, and to assign the acronym of English genre terms as classification notation. For applying the newly developed genre classification, KDC number of one middle school library was converted as the 3 methods such as combination of KDC, genre term before 800 and only genre term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uggest the genre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reflect user need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hierachical classification in KDC.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학교도서관, 장르 분류, 소설장서, 서가배열

Genre Classification, Fiction Collections, School Libraries,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8)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오산중학교 사서(tclass0057@hanmail.net)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leemh@kong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2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3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3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115-136,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1.115>

1. 서론

도서관에서 분류의 일차적 목적은 실물자료의 체계적인 배가를 통한 이용자 접근 및 검색을 지원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분류체계는 자료를 군집하거나 구분하는 논리적 기준인 동시에 서가배열에 직접 관여하는 물리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료 검색 및 획득에 가장 중요한 접근점으로 작용한다(정연경, 최윤경 2009, 6). 현재 국내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 표준분류표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은 십진형태의 계층분류로 구분원리가 각 계층마다 적용되어 구분원리의 순서에 따라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식이다. 특히 문학 분야의 경우는 구분원리가 언어-문학형식-시대 순으로 적용되어 이용자가 언어를 넘어서서 문학형식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자료를 한번에 검색하기 어렵다.

실제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소설장서의 이용에 있어 학생들은 읽은 도서를 중심으로 한 서가 브라우저를 통하여 같은 장르의 도서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나, KDC는 소설을 장르가 아닌 각국 언어로 우선 분류하므로 같은 장르의 자료가 분산 배가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분류체계가 이용자 중심적 분류,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이기보다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노지현 2010, 152). 소설장서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분류 체계가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용자 중심적 분류'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사서에겐 면대면 참고질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으며, 독립심이 강해 사서에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보원을 탐색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Bopp and Smith 2014, 539),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학교도서관의 분류체계는 사서의 도움 없이도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장서 구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주로 접근하는 소설장서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장르별 분류체제로 재구성하기 위해 KDC를 기반으로 한 장르 분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국내외 국립 및 공공 도서관 현황조사, 온·오프라인 서점과 KDC와 DDC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도서관 현황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 정독도서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현장조사 및 도서관 분류 사서와 면담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청소년으로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집중도가 높은 곳이고, 2개의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의 소설장서 이용이 높아 청소년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남산도서관은 한국문학특화도서관이다. 서점의 브라우저를 비교하기 위해 교보문고, 영풍문고의 대형 오프라인 서점과 알라딘, 반디앤루디스, 인터파크도서의 온라인 서점을 선정하였다. 온라인 서점은 홈페이지 분석으로 소설장서 분류 현황을 1차에서 3차 카테고리 및 추가 하위까지 조사하였으며 문헌적

타당도 측면에서 장르별 세분화를 위해 장르별 해당 문헌 수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소설장서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Spiller(1980)는 4개 공공도서관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설을 장르별로 분류하는 방법과 저자명 자모순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장르별 분류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Ainley와 Totterdell(1982)은 영국 2개 공공도서관에서 소설장서를 각기 다르게 장르 분류 후 이를 비교하여 새로운 장르 분류를 제안하였다. Baker(1988)는 미국 North Carolina 주 3개 공공도서관에서 소설을 장르별로 분류하는 실험을 통해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소설을 찾는 데 장르 분류가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Saarti(1997)는 핀란드 공공도서관에서 소설을 11개의 장르로 분류하고 이를 3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 장르별 분류 실행 이후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이용자와 사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Dumas(2005)는 WestMonroe의 Hope 중학교에서 소설장서를 11개로 범주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였다. 노지현(2010)은 장르 분류가 이용자 편의성면에서 매우 유용한 분류체계임을 북미 공공도서관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밝혔다. 김성원(2012)은 KDC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하여 한국소설 항목의 세분 전개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변우열과 이미화(2017)는 주제 접근에 한계가 있는 문학류에 장르 용어를 입력하고 장르별 아이콘을 부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혜전과 정연경(2018)은 중학교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설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르임을 입

증하고, 9가지로 장르 분류 후 각각 색깔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소설장서의 경우 장르 분류가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한 유용한 접근점임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장르 항목을 제시하였으나 KDC와 같은 계층 분류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소설장서 검색 시 우선 고려하는 장르 분류를 KDC에 접목한 분류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 소설장서 장르 분류의 개념

2.1 장르 분류의 개념

소설장서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을 근거로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획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장르 분류이다(Baker and Shepherd 1987). 장르 분류라는 용어는 도서관 현장에서 소설의 특정 장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용대상자, 언어, 주제, 자료유형, 이용목적, 자료의 크기 및 길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군집화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르 분류는 '학문'이나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류기준으로 '장르'를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노지현 2010, 158).

장르(genre)란 종류나 유형을 뜻하는 라틴어 genus에서 유래한 프랑스어의 역어이다. 문

학과 예술에 있어서 종류·부문·양식·형 등을 뜻하며 특히 문학에서 분류기준에 따라 서사·서정·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일컫는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5215). 문학에 있어 장르는 작품의 제재, 표현매체나 형태, 작가의 창작 목적 등에 따라 특징이 규정되지만 그것이 유통되는 특정 공간이나 민족, 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사회사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장르는 그 장르가 존재했던 특정한 나라나 시대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역사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와 배경에 의한 개별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권영민 2004).

소설의 장르는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표 1〉 참조). 소설의 장르를 도서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크게 서지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소설의 길이, 시대, 형식, 무대 등에 따른 분류는 서지적 분류이고, 소설의 주제, 구성, 소재, 문예사조, 예술성 등에 따른 분류는 내용적 분류이다.

도서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내용적 분류보다는 기계적 분류가 가능한 서지적 분류를 중심으로 발달시켜 왔으나 이용자는 소설의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하므로 이용자 요구와 편이에 부합하는 분류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소설의 장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은 계속 세분되고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추리소설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장르가 결합하여 또 다른 장르가 생겨나기도 한다. 〈표 2〉와 같이 소설을 대상으로 장르를 구분한 내용을 보면 시대, 혹은 그 사회의 맥락 및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2.2 장르 분류의 장단점

장르 분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 설명력의 강화(self-explanatory)로 분류체계가 직접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둘째, 목록레코드에

〈표 1〉 관점에 따른 소설 장르 유형

	관점	소설 장르 유형
서지적 구분	길이	콩트(葉篇小說),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대하소설
	시대	역사소설, 현대소설
	형식	역어체소설, 가사체소설, 희곡체소설, 번역체소설, 담화체소설, 내간체소설, 율문체소설, 문어체소설, 구어체소설, 한문소설
	무대	궁정소설, 양반소설, 서민소설
내용적 구분	주제	역사소설, 가정소설, 연애소설, 사회소설, 비극소설, 희극소설, 명랑소설, 운명소설, 순정소설, 탐정소설, 군담소설, 엽정소설, 도덕소설, 설화·괴담소설
	구성	테마소설, 성격소설, 사회소설, 문제소설, 분위기소설, 정치소설, 종교소설, 계몽소설, 심리소설
	소재	사(私)소설, 본격소설, 해양소설, 농촌소설, 역사소설, 항공소설, 사막소설, 시정소설, 전쟁소설, 섹스소설, 혁명소설, 추리소설, 탐정소설, 과학소설
	문예사조	낭만주의소설, 사실주의소설, 자연주의소설, 심리주의소설, 실존주의소설
	예술성	대중소설, 순수소설, 통속소설, 본격소설, 중간소설

※ 출처: 최석두(2001, 14-15)

〈표 2〉 연구자에 따른 소설 장르 구분 비교

Ainley와 Totterdell(1982)	Saarti(1997)	Dumas(2005)	조혜전과 정연경(2018)
역사소설	역사	역사소설	역사/전기 소설
로망스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연애/애정 소설
모험/첩보소설	탐정	모험	추리/탐정/모험 소설
공상과학/공상 소설	공상과학	과학소설	과학(SF)/공상 소설
		판타지	판타지소설
스릴러/탐정 소설	스릴러	호러	괴기/유령/공포 소설
	종교	기독교 생활	
	사회 소설	사실주의소설	정치/사회 소설
	유머	유머	
	심리		
	전쟁		
	사냥		
		미스터리	
		스포츠소설	
서부극			
소설 일반			기타 소설
			단편소설

직접 장르 분류에 적용된 장르명을 기술함으로써 주제명 데이터 보완의 효과를 얻고, 이를 장르별 검색에 활용함으로써 목록을 통한 특정 장르 자료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분류기호의 단순화로 인하여 사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다. 넷째, 소설을 장르별로 군집함으로써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다른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노지현 2010, 164).

WestMonroe의 Hope 중학교에서 소설장서의 장르 분류 이후 학생, 도서관 직원, 교사의 변화를 관찰하여 장르 분류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학생들은 소설을 많이 대출하였고, 장르 분류를 통해 동일 장르 내에 분류된 다른 책을 유연하게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구스범스 시리즈의 열렬한 팬들은 호러 섹션에서 다른 서명과 시리즈를 찾았으며, 해리 포터 팬들은 많은 새로운 다른 판타지 책을 찾을 수 있었다. 교사

들은 장르 분류로 학생들이 책 찾기가 쉬워져 학생지도가 용이해졌으며, 교과연계 도서를 읽히는 수업을 하기에 용이하여 이후 여러 교사가 독서능력개발을 위해 사서에게 장르 분류에 기반을 둔 도서목록을 요구하였다. 도서관 사서도 장르 분류 후 소설장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새로운 소설책이 도착한 후 추가적인 처리에 쉽게 적응했다(Dumas 2005, 21-22).

또한 장르 분류의 효과는 소규모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서관에서도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Baker(1988, 374)는 장서의 규모가 작은 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장르 분류 후 자료 이용률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르 분류를 적용함에 있어 장르 간 경계의 모호성, 동일 도서내 2개 이상의 장르적 특성을 갖는 소설의 장르 결정에 따른 정당성 부재, 이용자가 원치 않는 장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효과, 독자상담가로서 사서 역할의 축소, 동일 저자의 상이한 장르 소설의 분산 배열, 장르별 배열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된 바 있다(노지현 2010, 16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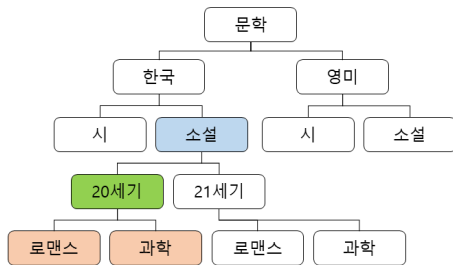
장르 분류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는 동일 장르의 소설이 한 곳에 군집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보다 쉽게 획득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선호하는 장르의 서가에서 '우연한 발견'에 의한 도서를 탐색할 수 있다. 특히 소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통한 탐색보다는 브라우저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 장르별 분류에 의한 서가배열에서 특정 장르의 소설이 위치한 서가를 브라우징하여 소설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서의 입장에서 지시형 질문이 눈에 띄게 줄어 봉사서비스 시간이 줄고, 분류기호의 단순화로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2.3 장르 분류를 위한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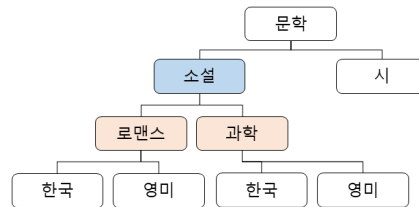
KDC 제6판의 소설장서 분류원칙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문학을 첫째 자리인 유목에 분류하여 숫자 8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원작의 언어로 된 문학을 둘째 자리인 강목에 분류하고, 문학의 한 형식인 소설을 셋째 자리인 요목에 분류하며, 넷째 자리인 세목에 시대를 배치한다. 이에 813.6(한국소설 20세기 1910-1999), 813.7(한국소설 21세기 2000-), 823.7(중국소설 현대), 833.6(일본소설 현대), 843.5(영미소설 20세기), 843.6(영미소설 21세기)이 되며, 장르는 별법에 따라 다섯 번째로 추가하고 있다.

분류표의 계층구조에 따라 소설장서의 분류기호를 조합하면 언어-문학형식-시대-장르 순으로 된 구분원리로 조합된다. 구분이란 서로 속성치가 다른 것끼리 나누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속성치가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된다. 구분하기 위하여 주목하는 속성을 구분원리라 하며 이렇게 하여 대상이 모인 그룹을 구분지라 한다(谷口祥一, 綠川信之 2007, 201). 이에 따라 KDC, DDC의 계층 분류는 <그림 1>과 같이 문학을 1차 구분원리(언어)를 적용한 한국 문학, 영미문학 등의 1차 구분지를 두고, 이를 다시 2차 구분원리(문학형식)를 적용한 시, 소설 등의 2차 구분지로 구분한 후, 3차 구분원리(시대)를 적용하고, 4차 원리(장르)를 적용하여 판타지소설, 로맨스소설 등의 장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구조에 따라 이용자는 언어, 문학형식, 장르의 순으로 자료에 접근해야 하며, 언어나 문학형식을 넘어선 장르에 기반해 자료를 한 번에 접근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분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분류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Baker와 Shepherd(1987, 246)는 소설장서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첫째,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소설을 세분화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용한 분류를 할 것, 셋째, 이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선택되지 못한 작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분류의 목적이 업무의 효율을 위한 기계적인 표준화보다는 이용자 편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분류에 있어서 이용자의 도서 검색 목적과 방식에 맞도록 자료를 분류하여 검색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림 1〉 언어-문학형식-시대-장르의 계층구조



〈그림 2〉 문학형식-장르-언어의 계층구조

장르 중심 새로운 분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구분원리인 장르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림 1〉의 1차 구분원리인 언어 대신 문학형식을 우선 적용하여 생성된 1차 구분지인 소설을 2차 구분원리인 장르로 변경하여 구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와 같은 계층구조에 의해 자료가 분류된 도서관에서는 동일 장르의 도서를 한 곳에 군집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서가 브라우징 기법으로 소설장서를 탐색할 때 원하는 장르의 소설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즉 계층구조에 기반한 분류표 구축에 있어 어떠한 속성을 상위 구분원리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점 및 자료 획득 편의성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분원리 적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소설장서 장르 분류 현황 분석

3.1 국내외 국립 및 공공 도서관 분류 현황

3.1.1 국내 국립 및 공공 도서관 분류 현황

국내도서관 사례로 청소년 자료를 주로 소장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청 소속의 남

산도서관과 정독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일반자료실은 두지 않고 어린이자료실과 청소년자료실을 운영하며, 연구·외국자료실이 있다. 청소년자료실의 경우 보유 단행본 중 문학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여타 주제자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8). KDC 제6판을 적용하여 자료 분류를 하고 있으며, 문학류의 경우 시대구분 아래 장르별 세구분을 하지 않았다.

남산도서관은 문학특화도서관으로 문학자료실에 교과서문학과 세계문학전집의 특별서가를 벽면에 배치하고 청구기호 위에 색깔스티커를 붙여 여타 자료와 구분하였다. 특히 세계문학전집은 출판사별로 서가를 달리하였다. 문학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문학은 따로 배치하고 핏말로 표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KDC 제6판에 의해 분류하고 문학류는 전체 단행본 중 29.3%를 차지하였다(남산도서관 2018). 문학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료는 소설이며, 한국소설은 고전소설 813.5, 20세기 소설 813.6과 2000년 이후 출간된 소설 813.7로 분류하고 시대 아래 장르별 세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분류 사서는 분류기호 813.6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집중되어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의 양으로 인하여 각 자료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장르별 분류에는 난색을 표하였다.

정독도서관은 KDC 제6판에 의해 자료 분류를 하고 있으며 장르별 세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특화자료는 청소년자료이며 청소년관을 일반자료실과 별도의 공간으로 배치해 두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배치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 자료의 집중을 위한 서기배열일 뿐 청소년관을 위한 별도의 분류기호는 할당하지 않고 다만 '청'이라는 별치기호를 배정하여 구분하였다. 전체 단행본 494,318책 중 문학류는 135,694책으로 27.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정독도서관 2018). 분류 사서와 면담 결과 소설장서의 세분을 위한 분류규정이 없어 장르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국립 및 공공 도서관에서는 KDC 세구분으로 장르 분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장르 분류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다.

3.1.2 국외 공공도서관 분류 현황

국외 도서관 사례로 DDC를 주로 사용하는 북미 및 유럽을 선택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여러번 언급된 시애틀 공공도서관과 캐나다 대표도서관인 토론토 공공도서관을 선정하고, 유럽의 사례로 DDC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분류체계에 반영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다.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1990년 전체 소장자료 중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장서와 전기류

및 어린이 자료에 있어 비소설류(non-fiction)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료에 장르 분류를 적용하였다. 미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하는 DDC 분류방식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신 '장르'와 '이용자층'에 따른 복합적인 분류방식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소설자료를 '어린이소설', '청소년소설', '성인소설'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성인소설'은 다시 '일반소설', '미스터리소설', '공상과학 및 판타지 소설', '서부개척소설'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시애틀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 자료의 경우 좀 더 세분된 분류를 적용하였는데, '명절', '민족', '세계의 여러 나라', '전래동화' 등 선호도가 높은 주제, '그림책', '수상작', '연작물' 등 자료의 특성, '초보 독자', '읽기 쉬운 책' 등 연령이나 독서 수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화 하였다(노지현 2010, 160-161).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DDC 제22판으로 자료 분류하고, 소설장서는 이용자의 연령 및 독서수준을 고려하여 Reading Ladder라는 자체 개발 분류표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실과 청소년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소설은 Reading Ladder에 따라 PIC, BR, ER, APIC, FICTION, MYSTERY, SCIENCE FICTION으로 구분하는 컬렉션기호를 사용해 장르별로 구분하고 계절관련 자료는 별도 서가를 구성하였다(정연경 외 2008, 123-124).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십진식 분류와 달리 소설장서를 전기, 학교생활, 과학소설, 스포츠 등 24개로 분류하고 각각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부착하여 서비스한다. 하나의 자료가 복합장르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중복표기 하고 이를 검색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Clarke 2013, 34-37). 이 도서관은 소설의 장르적 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반영한 분류를 함으로써 장르 분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장르 분류를 위해 새로운 장르 분류를 적용하거나 컬렉션기호를 할당하였다. 그러나 장르 분류가 연령이나 읽기능력 수준 등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분류이거나 그림책, 수상작 등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미스터리소설과 SF소설 등과 같은 자료의 주제나 장르 등 내용적 특성을 반영한 분류는 제한적이었다.

3.2 서점 분류 현황

오프라인 서점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 서점으로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도서의 소설 및 소설의 장르 분류를 조사하였다.

교보문고(광화문점)는 한국소설과 외국소설, 일본소설 아래에 각각 작가별 배열 후 도서명 가나다순 배열하였다. 한국소설은 한국근대/고전 문학, 한국역사소설을 별도서가에 두었고 중국소설에서도 삼국지/역사 소설에 서가를 따로 두었다. 국가별로 분류한 서가 외에 세계문학(출판사별, 작가별), 로맨스소설(도서명 가나다순), 추리작가, 판타지/SF, 청소년소설 서가를 두었다.

영풍문고(종로 본점)는 작가별 분류가 두드러졌다. 국내, 외국, 일본 유명작가선의 서가를 따로 구성하고도 국내소설작가선, 동양대표작가선, 서양대표작가선은 자료의 표지가 보이도록 판매대에 진열하였다. 국내소설, 외국소설, 중국소설, 일본소설을 각기 다른 서가에 배열하고 일

본과 중국의 고전을 한 서가에 배열하였다. 세계문학소설을 출판사별로 배열하고 국내소설 수상작품집을 별도 배치하였다. 삼국지, 로맨스, 판타지/추리 소설, 미스터리/호러 소설, 공상과학소설, 판타지동화전집, 역사인물소설을 각각의 서가에 배열하고 장르 소설 판매대를 따로 구성하였다. 판매대를 제외한 모든 작가선 서가 내에서는 작가명 가나다순, 그 외 서가는 도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이하 알라딘)의 국내도서중 소설이 포함된 카테고리를 추출하였다. 소설 관련 1차 카테고리는 고전, 소설, 장르소설이다. 소설은 국가별, 장르별, 테마별 등의 2차 카테고리 크게 나뉘고, 소설→국가(한국/일본/영미 등)는 시대로 세구분하고, 소설→장르(추리/판타지/역사 등)는 국가로 세구분되며, 소설→테마는 성장, 가족, 영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장르 소설은 장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미 소설→장르에서 제공된 항목과 동일하게 제공된다(〈표 3〉 참조).

반디앤루니스 온라인 서점(이하 반디앤루니스)에서는 1차 카테고리에 소설과 대등한 위치에 장르 소설을 두어 공포/무협 소설, 추리/범죄/스릴러, 로맨스/인터넷 소설, SF/판타지 소설 등 장르 분류 소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아래 국가별 언어 하위에 장르 소설의 하위범주인 공포/무협 소설, 추리/범죄/스릴러, 로맨스/인터넷 소설, SF/판타지 소설은 한국소설, 일본소설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SF/판타지 소설을 원하는 이용자는 1차 카테고리 장르에서 2차 카테고리 SF/판타지 소설로 이동하여 브라우징 하거나, 1차 카테고리 소설에서 2차 카테고리 언어별 소설로 이

〈표 3〉 3개 온라인 서점 소설 분야 카테고리 비교

알라딘			반디앤루디스			인터파크		
1차	2차 혹은 2차 → 3차	자료 수 (종)	1차 → 2차	2차 혹은 3차	자료 수 (종)	1차 → 2차	2차 혹은 3차	자료 수 (종)
고전	다시 쓴 고전	277	소설 → 고전/명작	한국	748			
	동양고전문학 → 중국/기타	1,395		중국	389			
	서양고전문학 → 고대/근대/중세/현대	5,204		기타 외국	1,788			
	우리나라 옛글	1,857		일본	202			
	위대한 작가들	592		영미	1,468			
소설	한국 → 시대	19,240	소설 → 한국	출판사별	1,243	소설 → 한국 소설	시대(고전/근대/현대)	18,772
				현대소설	10,153			
				고전/명작 소설	1,405			
				공포/무협 소설	7,088			
				추리/범죄/스릴러	543			
				로맨스/인터넷소설	5,839			
				SF/판타지 소설	13,484			
				동화/우화 소설	128			
				가족/성장 소설	158			
				드라마/영화 소설	328			
	대하/역사/전쟁	2,978						
	문학상수상작품	424						
	문지사한국소설선	168						
	일본 → 시대	4,664	소설 → 일본	현대소설	4,815	소설 → 외국 소설	일본	4,415
				고전/명작 소설	385			
				추리/범죄/스릴러	947			
				로맨스소설	354			
				SF/판타지 소설	498			
동화/우화 소설				22				
가족/성장 소설				70				
드라마/영화 소설				115				
대하/역사/전쟁	351							
문학상수상작품	79							
영미	10,740	소설 → 영미	현대소설	2,955	소설 → 외국 소설	영미	8,150	
			고전/명작 소설	2,401				
			추리/범죄/스릴러	1,619				
			로맨스소설	930				
			SF/판타지 소설	986				
			동화/우화 소설	60				
			가족/성장 소설	148				
			드라마/영화 소설	257				
대하/역사/전쟁	93							
문학상수상작품	99							
스페인/중남미	618	소설 → 기타 외국	스페인/중남미	331		스페인/중남미	426	
프랑스	3,415		프랑스	2,017		프랑스	2,539	
독일	1,997		독일	1,026		독일	1,444	
중국	1,877		중국	1,682		중국	1,697	
러시아	1,324					러시아	994	

알라딘			반디앤루디스			인터파크		
1차	2차 혹은 2차 → 3차	자료 수 (종)	1차 → 2차	2차 혹은 3차	자료 수 (종)	1차 → 2차	2차 혹은 3차	자료 수 (종)
	세계의 소설 → 이태리/아일랜드/북유럽/동유럽/중동 터키/아프리카/기타	2,677		동유럽	441		유럽	1,755
				인도	39		인도	76
							아프리카	65
				기타 나라	1,465		기타 외국	1,324
	추리/미스터리 소설 → 일본/영미/한국/기타	4,078	소설 → 장르 소설	추리/범죄/스릴러	515	소설 → 장르 소설	추리/미스터리 소설	3,712
	판타지/환상 문학 → 외국/한국	11,198					판타지소설	32,717
	역사소설 → 한국/외국	2,869						
	과학소설(SF) → 한국/외국	1,107		SF/판타지 소설	3,010		SF/과학 소설	817
	호러/공포 소설 → 한국/외국	539		공포/무협 소설	2,147		공포/호러 소설	530
	무협소설 → 한국/외국	5,675					무협소설	13,773
	액션/스릴러 소설 → 한국/외국	1,301					액션/스릴러	118
	로맨스소설 → 한국/외국	11,923		로맨스/인터넷 소설	1,669		로맨스소설	13,421
				출판사	321			
	신춘문예작품집	130						
	우리나라 옛글	1,554						
	여성문학	305				여성문학	200	
	테마 → 성장문학	880	소설 → 주제 있는 문학	가족/성장 소설	311	성장문학	483	
	테마 → 가족문학	471				가족문학	233	
	테마 → 영화소설	3,361		드라마/영화 소설	592	영화/드라마 소설	1,130	
	테마 → 드라마소설	985						
테마 → 동물이야기	174							
테마 → 대체역사/가상소설	297	대하/역사/전쟁 소설		1,831	역사소설	4,159		
테마 → 사랑/연애/에로티시즘	1,189							
테마 → 전쟁문학	394				전쟁/분단 소설	314		
					동화/우화 소설	263		
세계의 문학 → 일본 외 17개국 문학	국가 카테고리 중복							
장르 소설	추리/미스터리 소설	4,078	장르 소설 (1차)	추리/범죄/스릴러	8,299	장르 소설 (1차)	추리/미스터리 소설	3,712
	액션/스릴러 소설	1,301					액션/스릴러	118
	판타지/환상문학	11,198		SF/판타지 소설	2,549		판타지소설	32,717
	과학소설(SF)	1,107					SF/과학 소설	817
	호러/공포 소설	539		공포/무협 소설	6,766		공포/호러 소설	530
	무협소설	5,675					무협소설	13,773
	로맨스소설	11,923		로맨스/인터넷 소설	11,342		로맨스소설	13,421

*출처: 알라딘홈페이지(<https://www.aladin.co.kr/>), 반디앤루디스홈페이지(<http://www.bandinlunis.com/>), 인터파크도서 홈페이지(<http://book.interpark.com/>)

동한 후 3차 카테고리 SF/판타지 소설로 브라 우징 할 수도 있다. 즉 이용자는 SF/판타지 소설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 언어별로 선택한 후 SF/판타지 소설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는

장르로 우선 접근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분원리를 달리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인터파크도서 온라인 서점(이하 인터파크도

서)은 소설과 장르 소설로 나누어 1차 카테고리를 나누고, 소설에는 2차 카테고리로 한국, 외국, 장르 소설, 주제가 있는 문학으로 구분하였다. 소설→장르 소설에서는 3차 카테고리로 장르의 세부 유형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1차 카테고리인 장르 소설에서도 세부적인 장르 유형의 소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소설→장르 소설 아래 배정된 세부 유형과도 일치한다. 소설→주제가 있는 문학에는 장르 이외에도 주요 토픽의 소설이 제시되어 있다(〈표 3〉 참조).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소설의 장르 분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장르소설 및 작가, 영화, 드라마, 수상작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서가상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라인서점에서는 계층별로 소설→언어→장르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계층 분류의 구분원리를 변경하여 장르로 먼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르 소설의 유형을 추리/미스터리, 액션/스릴러, 판타지/환상, 과학소설, 호러/공포, 무협, 로맨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출판되는 도서의 양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축약해서 제공하기도 하였다.

3.3 현황 분석 결과

KDC, DDC,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의 소설장서 장르 분류의 항목을 〈표 4〉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장르 분류는 기존 KDC, DDC에서 상당부분 이미 수용하고 있었다. 다만 전기, 모험, 서부, 피카레스크 등은 DDC와 KDC에 표목

으로 있으나 서점에서는 분류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무협/액션, 서스펜스/스릴러 등은 3곳의 온라인 서점에서 분류하였으나 KDC, DDC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DDC와 KDC는 문헌 분류에 있어 학제적 중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의한 분류항목이 나누어지지만, 온라인 서점은 이용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분류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 여성, 가족 등의 다양한 테마, 세계문학, 영화와 드라마 원작, 신춘문예작품집, 수상작품, 동서양대표작가선, 출판사별 시리즈 등은 DDC와 KDC에는 없지만 이용자의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사용가능하다.

셋째, 온라인 서점의 분류는 서가 위치에 관여하지 않아 계층 적용이 유연하므로 이용자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다. 즉 국가(언어) 하위에서 장르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장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배열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한 자료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소설장서의 장르 분류 방안

4.1 장르분류표 개발 시 고려사항

중등학교 도서관의 소설장서를 위한 장르분류표 개발을 위해 문헌적 타당성, KDC 구분원리의 변형, 체계적인 분류표 구축 과정 방안, 실제 도서관 이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였다.

〈표 4〉 KDC, DDC, 서점의 소설장서 장르 분류 비교

장르(카테고리)	표준분류표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DDC23판 (T3B)	KDC6판 (813.6)	교보	영풍	알라딘	반디앤 루니스	인터파크 도서
단편		.602					
역사/시대/대하	-3081	.603	○	○	○	○	○
전기	-3082	.603					
정치	-3082	.604					○
사회	-3082	.604					○
로맨스/연애/애정	-3085	.605	○	○	○	○	○
추리/탐정	-30872	.607	○	○	○	○	○
모험	-3087	.607					
괴기/유령/공포	-30873	.607		○	○	○	○
과학(SF)	-30876	.608	○	○	○	○	○
공상/판타지	-30876	.608	○	○	○	○	○
고전	829**	813.5*	○	○	○	○	○
무협/액션					○	○	○
서부	-30874						
피카레스크(악한)	-30877						
우화		813.8*			○	○	
서스펜스/스릴러	-30872				○	○	○
세계문학			○	○	○	○	
영화와 드라마 원작					○	○	○
여성					○		○
가족					○	○	○
성장					○	○	○
전쟁					○	○	○
대체역사/가상소설					○		
삼국지			○	○			
동물이야기					○		
신춘문예작품집					○		
수상작품				○		○	
동서양대표작가선				○	○		
출판사별 시리즈						○	
기타		.609					

* 세목에서 분류번호 배정 ** old English, 요목에서 분류기호 배정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2013), Dewey(2011)

첫째, 문헌적 타당성에 있어 문헌량 근거 혹은 문헌적 근거는 (1)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헌의 양, (2) 특정 분야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된 지식의 양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136). 문헌 분류체계에서 분류항목의 설치와 전개는 문헌량이 많은 주제 분야는 세

분화하고,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주제일 지라도 실제 해당 분야의 문헌량이 적다면 축소되는 것이다(김성원 2012, 68). 이러한 문헌적 타당성을 장르분류표 개발 시 적용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의 자료 수를 바탕으로 장르 분류 항목을 세구분하거나 결합하였다.

둘째, KDC 계층분류의 구분원리가 언어 → 문학형식 →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장르를 우선으로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장르를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분원리를 변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혜전과 정연경(2018)의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소설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르'를 선택하였고, 이어 '제재', '길이', '인물', '추천서평' 등의 순으로 소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다수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인 KDC에서 소설의 주요 구분원리로 삼는 언어와 시대는 설문조사 결과 하위에 머물러 학생들이 소설을 선택함에 있어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참조).

셋째, KDC에 기반한 장르분류표 개발의 과정으로 Hunter(2015, 43)가 제시한 8가지 과정 중 개념 분석, 개념의 그룹화, 본표 내의 본표 배열 순서 결정, 조합 및 분류기호 할당의 절차를 따랐다. 본 연구는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KDC를 기반으로 하고, 중등학교 도서관의 소설장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검색 및 접근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장르 분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핵심적인 4가지 과정으로 축약하여 적용하였다.

넷째, 현장 도서관의 직접적인 요구를 파악하

기 위해 ○○중학교 도서관 이용자와의 면담, 이용자들이 참고질문으로 찾는 자료 유형, 사서의 실제 분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1)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 KDC를 사용하므로 학교도서관에 적용하기 쉽도록 KDC를 기반한다. (2) 실제 서가에 적용시 순차적 배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어 표목의 두문자를 기호로 사용하여 조기성을 높인다. 특히 KDC가 주로 숫자이므로 장르를 잘 표현하려면 숫자 보다는 영문자를 사용한다. (3) 동일 주제의 상이한 용어이거나 연관 주제는 하나로 묶고 이를 대표하는 표목을 선정해 하나로 분류한다. (4) 중등학교 도서관의 주 서비스 대상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표목을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라이트노벨, 게임소설, 팬픽 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5) 분류의 원칙인 망라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관점의 장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표목을 추가한다.

4.2 장르분류표 개발 과정

4.2.1 개념 분석

KDC, DDC,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사용하는 장르 항목명을 비교·분석한 <표 4>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분류 표목을 <표 6>과 같이 추출하였다. KDC, DDC, 조사대상 대형

<표 5> 소설 선택 시 핵심요소

(단위: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장르	제재	길이	인물	추천서평	시대 1	작가	장소	국가	언어	교과연계	수상작	시대 2	출판년도	기타
	24.8	18.5	10.9	7.9	7.4	5.8	5.7	5.3	4.2	2.6	2.2	1.9	1.0	0.9	0.9

* 출처: 조혜전, 정연경(2018, <표 7>)

〈표 6〉 소설장서 장르 종합 및 대표표목 선정

표목(장르)	표출 횟수	비고	대표표목	표목(장르)	표출 횟수		대표표목
단편	1	KDC	단편	무협/액션	3		모험
역사, 시대, 대하	7		역사	서부	1	DDC	모험
전기	2	KDC,DDC	역사	피카레스크(악한)	1	DDC	-
정치	3		교육	우화	3		어린이
사회	3		교육	서스펜스/스릴러	4		미스터리
로맨스/연애/애정	7		애정	세계문학	4		출판사전집
추리/탐정	7		미스터리	영화와 드라마 원작	3		-
모험	2	KDC,DDC	모험	가족	3		드라마
괴기/유령/공포	6		미스터리	성장	3		성장
과학(SF)	7		판타지	전쟁	3		역사
공상/판타지	7		판타지	기타	1	KDC	기타
고전	7		고전	종교		추가	종교

서점(2) 및 온라인 서점(3) 중에서 3회 이상 나타난 표목을 추출하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소설장서는 KDC로 분류되고 있고 번역도서의 장르 분류는 DDC가 적합하므로 DDC와 KDC의 장르 표목은 모두 추출하였다.

4.2.2 개념 그룹화

추출된 표목을 그룹화하여 대표표목을 제시하였으며 그룹화를 바탕으로 대표표목 선정을 위해 첫째, 중등학교 도서관의 소설장서 수를 고려할 때, 하나의 표목에 집중되는 장서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지지 않도록 표목을 세분하였다. 둘째, ○○중학교 도서관 이용자와의 면담, 이용자들이 참고질문으로 찾는 자료 유형, 사서의 실제 분류 경험을 기반으로 용어를 그룹핑하고, 실질적인 대표표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장서 장르를 그룹화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단편, 역사, 교육, 애정, 미스터리, 모험, 판타지, 고전, 어린이, 출판사전집, 드라마, 성장, 기타, 종교의 14개 대표표목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고전과 단편은 중등학교 도서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중요한 표목이므로 선정하였다. 특히, 단편은 길이와 관련된 것으로 소설 선택 시 소설의 길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조혜진, 정연경 2018) 단편을 표목으로 포함하였다. 역사에는 전기, 전쟁, 역사, 시대, 대하를 하나로 그룹화하였는데 이는 DDC와 KDC 모두 900(역사)의 하위강목에 '전기'를 배치한 것에 근거하였다. 모험에는 서부, 모험, 무협/액션 장르를 포함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비슷한 플랫폼을 갖고, 독자의 성향도 비슷하므로 그룹화하였다. 판타지에 과학(SF), 공상을 하나로 묶었는데 학교도서관에서 과학(SF)소설을 좋아하는 이용자가 판타지소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스터리에는 추리/탐정, 괴기/유령/공포, 서스펜스/스릴러를 묶어 대표표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세 장르의 공통적 요소가 미스터리이기 때문이다. 교육에는 정치, 사회를 그룹화하였다. 정치, 사회는 학교도서관 주이용자인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며 학교 현장에서 주로

교과교사에 의해 학습자료로 이용된다. 기타로 어린이는 우화를 대신하는 표목으로, 출판사전집은 세계문학을 위한 표목으로, 드라마는 가족을 위한 표목으로, 애정은 로맨스/연애/애정을 위한 대표표목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피카레스크(악한)'는 DDC에서만 사용되고, '영화와 드라마 원작'은 내용적 분류가 아닌 서지적 분류로 그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이차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종교는 중등학교 도서관 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를 추가하였다.

4.2.3 본표 배열 순서 결정

소설의 장르를 내용적 분류 10가지(모험, 드라마, 교육, 판타지, 성장, 역사, 애정, 미스터리, 종교, 기타)와 서지적 분류 4가지(고전, 어린이, 출판사전집, 단편)로 범주화하고, 기타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각 영어 표목의 알파벳순을 본표내 배열 순서로 삼았다(〈표 7〉 참조).

〈표 7〉 중등학교 도서관 소설장서 장르분류표

(알파벳 I와 O는 공기호)

기호	장르(표목)	포함 장르
A	모험(Adventure)	모험, 영웅, 서부, 무협, 액션
C	고전(Classic)	한국 고전
D	드라마(Drama)	드라마, 가정, 우정, 학교생활
E	교육(Education)	교육, 수학소설, 과학소설, 사회소설, 정치소설
F	판타지(Fantasy)	판타지, SF, 환상문학, 라이트노벨, 게임소설, 팬픽
G	성장(Growth)	성장, 진로, 진학, 교훈, 자기계발, 인성, 정체성, 철학, 여행
H	역사(History)	역사, 대하소설, 전기, 전쟁, 시대, 가상역사
K	어린이(Kid)	동화, 자연, 동물, 그림책, 우화
L	애정(Love)	애정, 로맨스, 러브 스토리, 이성, 연애
M	미스터리(Mystery)	미스터리, 추리, 공포, 호러, 스릴러, 좀비, 범죄, 탐정, 스파이, 메디컬
P	출판사전집(Publisher collection)	각기 다른 주제나 개별성을 지니고 동일 총서로 출간된 자료
R	종교(Religion)	종교, 신화, 설화, 민담, 민속 옛이야기
S	단편(Short-story)	단편, 단편소설집, 단편소설전집
X	기타(Others)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둘 이상 장르가 혼재된 자료

주기(note)

- 모험(Adventure): 모험, 영웅, 서부, 무협, 액션 장르를 포함한다. 모험 소설의 경우 특별한 여정에서 주인공이 위험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로 성장(Growth)의 여행소설과 구분된다.
- 고전(Classic): 한국 고전 장르를 포함한다. KDC 분류체계를 적용할 때 813.5에 분류되는 자료를 이곳에 분류한다. 흔히 세계문학이라 일컬어지는 국내의 명작은 대형 출판사에서 전집으로 발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곳에 포함하지 않는다.
- 드라마(Drama): 드라마, 가정, 우정, 학교생활 장르를 포함한다. 주로 서사적이며 스토리에 의존하는 자료가 속한다.
- 교육(Education): 교육, 수학소설, 과학소설, 사회소설, 정치소설 장르를 포함한다. 교과내용을 소설형식으로 풀어내거나 학습적인 성격이 강한 자료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역사소설의 경우 대하소설과 함께 '역사(History)'에 분류한다.
- 판타지(Fantasy): 판타지, SF, 환상문학, 라이트노벨, 게임소설, 팬픽(Fan과 Fiction의 합성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쓰는 소설) 장르를 포함한다. 주로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자료가 속한다.
- 성장(Growth): 성장, 진로, 진학, 교훈, 자기계발, 인성, 정체성, 철학, 여행 장르를 포함 한다. 주로 심리적 성장을 주제로 한 자료가 속한다.
- 역사(History): 역사, 대하, 전기, 전쟁, 시대, 가상역사 등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역사인물을 그린 소설 장르를 포함한다.
- 어린이(Kid): 동화, 자연, 동물, 그림책, 우화 자료가 이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장르에 속하지 않으므로 타 장르와 중복이 필연적이다. 이곳에 속하는 자료를 군집하려면 K를 부여하고, 장르를 따르려면 해당 장르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등학교 도서관의 특성 상 그림책의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아 K에 군집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애정(Love): 애정, 로맨스, 러브 스토리, 이성, 연애 장르를 포함한다. 드라마(Drama)가 서사적이며 스토리에 의존하는 반면, 애정(Love)은 사랑이야기가 주로 부각되는 자료를 배정한다.
- 미스터리(Mystery): 미스터리, 추리, 공포, 호러, 스릴러, 좀비, 범죄, 탐정, 스파이, 메디컬 장르를 포함한다. 스파이소설의 경우, 실제 역사적 이벤트를 작품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 '역사(History)' 장르에 분류한다. 메디컬소설의 경우, 공포와 긴장감을 조성하고 범죄와 연관성이 큰 장르이므로 이곳에 분류한다.
- 출판사전집(Publisher collection): 각기 다른 주제나 개별성을 지니고 동일 총서로 출간된 자료가 이에 속한다. 단일 주제의 시리즈나 동일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은 배제한다. KDC 분류체계를 적용할 때 808.3에 위치하는 자료는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민음사 세계문학전집(O), 비룡소 클래식(O), 해리포터(X)
- 종교(Religion): 종교, 신화, 설화, 민담, 민속 옛이야기를 포함한다. 신화와 설화는 고대부터 구전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토속신앙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민담, 민속 옛이야기의 경우 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일지라도 토속적 자료의 인접배치를 고려하여 여기에 배치한다.
- 단편(Short-story): 단편, 단편소설본집, 단편소설전집을 포함한다. 단편소설전집은 '출판사전집(Publisher collection)'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설 선택 시 핵심 요소를 나타낸 〈표 5〉에서 소설의 길이가 장르, 세계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반영한 것이다.
- 기타(Others, X):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둘 이상 장르가 혼재된 자료가 이에 속한다. 기타자료(Others)의 분류기호는 알파벳 O에 배정되어야 하나 숫자 0과 유사하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공기호로 두고, 수학에서 주로 미지의 영역을 나타내는 X로 대신한다.

4.2.4 분류기호 할당

소설 장르의 분류는 각각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병렬적 개념으로 배열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체계적 배열순서 조직을 위하여 대표표목에 서열화가 가능한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체계에서 개념과 주제를 표현하고 표목의 대체수단으로 사용가능한 분류기호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연속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하면서도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지식을 배열하기 위함이다. 이 기호는 온라인 목록(OPAC)과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자료를 물리적으로 조직하는데 사용된다(김태수 2000, 141).

KDC는 분류기호가 십진식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순수기호법이나, 제6판의 경우, 아동문학(C808.91 또는 J808.91), 미국문학(U840) 등에 별법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선치시켜 분류하도록 하는 택일규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DC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고 배열순서도 고려하여 서열화가 가능한 영어 표목의 알파벳 두문자를 대문자로 분류기호를 할당하되 조기성을 고려하였다(〈표 7〉 참조).

4.3 장르분류표 적용 및 활용 방안

학교도서관을 위한 장르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중학교 도서관을 선정하여 장르분류표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도서관은 2015년 이전 입수 자료는 KDC 제5판을 사용하고, 이후 입수 자료는 KDC 제6판을 사용한다. 전체 소장 자료 11,519책 중 문학에 해당하는 자료는 3,587책으로 전체 장서의 31.1%를 차지하고, 문학류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64.9%이다. 전체

장서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타주 체류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이 높은 대표적인 장서를 선정하여 KDC와 혼합한 적용, 장르기호를 선치 적용, 장르기호만 적용(장르기호의 결합 포함)의 3가지로 장르분류표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4.3.1 KDC와 혼합 적용

KDC와 혼합 적용하는 방안은 KDC 본표 내 소설장서에 할당된 셋째 자리 요목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둘째자리 강목의 '언어'를 요목으로 위치 이동한 후 본 장르 분류기호를 강목에 배치하여 구분원리에서 장르를 언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 예시를 나열하면 다음 〈표 8〉과 같으며, 두 번째 자리에 장르 기호를 추가하고 세 번째 위치에 언어를 두어 기존의 분류기호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구분원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적용의 장점은 첫째, KDC의 십진체계를 유지하여 소설 이외의 장서와 일관성을 줄 수 있다. 둘째, 1차 장르 분류된 자료가 2차 원작의 언어로 분류되어 이용자에게 보다 세분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타 적용방법에 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분류로 관련 자료의 인접배치가 가능하다. 이는 분류기호가 자체 설명력의 강화로 학교도서관 이용이 익숙한 이용자에게 도서관 OPAC를 거치지 않고도 한눈에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3.2 장르 기호 선치 적용

장르 분류기호를 KDC 문학 분류기호인 800에 선치하는 것이다. 800은 문학류 전체를 아우

〈표 8〉 KDC와 혼합한 적용 예시

서명	KDC	KDC와 혼합 적용	장르 기호 선치 적용	장르 기호만 적용
드래곤 라자	813.6	8F1.6(판타지-한국-20세기)	F800(판타지)	F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843	8F4(판타지-영미)		
1Q84	833	8F3(판타지-일본)		
끝없는 이야기	853	8F5(판타지-독일)		
아몬드	813.7	8G1.7(성장-한국-21세기)	G800(성장)	G
호밀밭의 파수꾼	843	8G4(성장-영미)		
데미안	853	8G5(성장-독일)		
어린왕자	863	8G6(성장-프랑스)		
바리테기	813.6	8R1.6(설화-한국-20세기)	R800(종교)	R
천로역정	843	8R4(종교-영미)		
오두막	843	8R4(종교-영미)		
신	863	8R6(종교-프랑스)		
82년생 김지영	813.7	8E1.7(사회-한국-21세기)	E800(교육)	E
이Q정전	823	8E2(사회-중국)		
동물농장	843	8E4(사회-영미)		
레 미제라블	863	8E6(사회-프랑스)		
뿌리 깊은 나무	813.6	8M1.6(추리-한국-20세기)	M800(미스터리)	M
주홍색 연구	843	8M4(탐정-영미)		
내 이름은 빨강	839.4	8M3.94(미스터리-기타 제문학)		
오페라의 유령	863	8M6(미스터리-프랑스)		
토지	813.6	8H1.6(대하-한국-20세기)	H800(역사)	H
칼의 노래	813.6	8H1.6(전쟁-한국-20세기)		
삼국지	823	8H2(전쟁-중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833	8H3(역사인물-일본)		
압록강은 흐른다	853	8H5(시대-독일)		

르는 대표성을 지닌 분류번호이며 문학을 대표하는 형식이 소설이므로 서가배열에 있어 여타 형식에 우선하여 배가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적용 예시를 나열하면 다음 〈표 8〉과 같이 알파벳으로 나타나는 소설 장르 분류기호가 800에 선치되어 문학류에서도 소설에 적용한 이 번호가 가장 먼저 배치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을 할 경우 동일 장르의 도서가 KDC에 의해 원저의 언어에 우선 분류되어

분산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동일 장르의 소설장서가 동일 기호 한 곳에 집중되어 이용자가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장서수가 적은 언어의 장서가 이용자의 ‘우연한 발견’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다만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 의해 배가되는 경우 한 가지 문제점은 동일 작가의 다른 장르 소설이 상이한 곳에 배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소설에 있어 어느 정도 작가별로 전문영역이 존재(예를 들면, 추리작가, SF작가)하여 동일 작

가가 상이한 주제로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김성원 2012, 77), 소설 선택 시 핵심 요소에서 작가에 대한 선호는 7위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4.3.3 장르 기호만 적용(2가지 장르 결합)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공간이 허락된다면 소설장서를 위한 서가를 따로 마련하고 KDC 분류기호를 벗어나 소설장서에 장르분류표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적용 방안은 단지 알파벳 한 글자만을 사용하여 장르를 표기하므로 분류기호의 경제성이 두드러진다(〈표 8〉 참조).

또한 이를 보다 더 확장하여 알파벳 두 글자의 조합으로 '1차 장르(대문자) + 2차 장르(소문자)' 형식으로 복합장르를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표 9〉 참조). 현대 소설은 그 제재와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개 이상의 장르가 혼재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분류기호에 반영하는 작업은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두 가지 장르를 결

합하는 경우 대문자로 표기되는 장르와 소문자로 표기되는 장르의 결정은 본 분류표 내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P(출판사전집)'에 분류되는 자료는 전집에 부여된 목록 순서에 따라 배가될 수 있도록 2차 장르로 세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적용의 장점은 다양한 장르의 복합표기로 인한 이용자 접근성 극대화, 분류기호의 전폭적인 축소로 인한 경제성 확보와 그에 따른 분류 업무의 경감을 들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장서 구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주로 접근하는 소설장서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장르별 분류체계로 재구성하기 위해 KDC를 기반으로 한 장르 분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도서관 현황조사, 온·오프라인 서점과 KDC와 DDC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 2가지 장르를 결합한 예시

서명	패킷 적용	분류기호
트와일라잇	F(판타지) + L(로맨스)	Fl
뿌리 깊은 나무	M(추리) + H(역사)	Hm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E(사회) + S(단편)	Es
아라비안 나이트	F(환상) + S(단편)	Fs
해를 품은 달	L(로맨스) + H(시대)	Hl
메이즈 러너	M(좀비) + D(우정)	Dm
책 먹는 여우	K(우화) + E(교육)	Ek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G(성장) + L(러브 스토리)	Gl
살롯의 거미줄	K(동물) + D(우정)	Dk
걸리버 여행기	E(사회) + F(판타지)	Ef
필경사 바틀비	S(단편) + E(사회)	Es

이를 바탕으로 개념 분석, 개념의 그룹화, 본표 내의 본표 배열순서 결정, 조합 및 분류기호 할당의 과정을 통해 KDC를 기반으로 한 장르분류표를 개발하였다.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모험(Adventure), 고전(Classic), 드라마(Drama), 교육(Education), 판타지(Fantasy), 성장(Growth), 역사(History), 어린이(Kid), 애정(Love), 미스터리(Mystery), 출판사전집(Publisher collection), 종교(Religion), 단편(Short-story), 기타(Others, X)의 14개 장르 용어를 분석하고, 영어 알파벳 순으로 본표 배열 순서를 정하였다. 분류기호 조합과 할당은 기타 장르를 제외하고 모두 영문 표목의 두문자를 분류기호로 배정하여 이용자

가 직관적으로 장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분류표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도서관의 소설장서를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KDC와 혼합 적용, 장르기호를 선치해 적용, 장르기호만 적용의 3가지로 제안하였다.

본 분류표는 단순히 소설의 장르를 표면에 부각시키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가배열에 관여함으로써 중등학교 도서관 이용자가 소설장서 검색 및 획득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표를 학교도서관 소설장서의 서가분류에 적용하여 이용자 연구를 토대로 한 효과성 및 효용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원. 2012.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7-78.
-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70.
- 변우열, 이미화. 2017.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1-50.
- 정연경 외. 2008.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개선방안』.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정연경, 최윤경. 2009.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법 적용 현황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5-26.
- 조혜전, 정연경. 2018.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1): 61-82.
- 최석두. 2001. 이용자지향 소설검색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연구. 『지식처리연구』, 2(2): 1-38.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inley, P. and B. Totterdell. 1982. *Alternative Arrangement: New Approaches to Public Library Stock*. London: Holmes McDougall Bookselling.
- Baker, S. 1988. "Will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Increase Use?" *RQ*, 27(3): 366-376.
- Baker, S. and G. Shepherd, 1987.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The Principles behind Them and Their Success." *RQ*, 27(2): 245-251.
- Bopp, R. and L. Smith. 2014. 『참고정보서비스론』. 장혜란 옮김. 서울: 조은글터.
- Clarke, R. 2013. "The Evolution and Use of Alternative Classification in Dutch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ies*, 52(2): 34-37.
-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3rd ed. Dublin, Ohio: OCLC.
- Dumas, E. 2005. "Give'em What They Want!: Reorganizing Your Fiction Collection by Genre." *Library Media Connection*, 24(2): 20-22.
- Hunter, E. 2015. 『분류란 무엇인가』. 박지영 옮김. 파주: 한울.
- Saarti, J. 1997. "Feeding With the Spoon or the Effects Shelf Classification on Fiction on the Loaning of Fiction." *Information Service and Use*, 17(2-3): 159-169.
- Spiller, D. 1980. "The Provision of Fiction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12(4): 238-266.
- 谷口祥一, 綠川信之. 2011. 『지식자원의 메타데이터』. 최석두, 한상길 옮김. 파주: 한울.
- 중학교 도서관 DLS시스템 [online]. [cited 2019.1.29].
 <<http://reading.ssem.or.kr/r/reading/search/schoolCodeSetting.jsp?schoolCode=6163&returnUrl=>>.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8.11.10].
 <<https://www.nlcy.go.kr/menu/11220/program/50002/dataRoomYoung.do>>.
- 남산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01.10].
 <http://nslib.sen.go.kr/nslib/html.do?menu_idx=36>.
- 반디앤루니스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1.10]. <<http://www.bandinlunis.com/>>.
- 알라딘 홈페이지 [online]. [인용 2019.1.10]. <<https://www.aladin.co.kr/>>.
- 인터파크 도서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1.10]. <<http://book.interpark.com/>>.
- 정독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1.10].
 <http://jdlib.sen.go.kr/jdlib/html.do?menu_idx=3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and Mihwa Lee.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gital Library System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31-50.
- Cho, Hye-Chon and Yeon-Kyoung Chung. 2018. "A Study on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Enhance to Access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61-82.
- Choi, Suk-doo. 2001. "A Study on Under-Oriented Fic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Knowledge Processing and Management*, 2(2): 1-38.
- Chung, Yeon-Kyoung and Yoon-Kyung Choi. 2009.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and Users' Needs in Libraries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5-26.
- Chung, Yeon-Kyoung et al. 2008. *The Ways of improving Classification System for Children's Library*.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Kim, Sungwon. 2012. "A Research on Close Classification for Korean Fiction in KDC: Focusing o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57-78.
- Kim, Tea-Soo. 2000. *Understanding of Classification*. Seoul: Literature Information Processing Research Society.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on, Young Min. 2004. *The Encyclopedia of Modern Korean Litera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99.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doosan-donga.
- Rho, Jee-Hyun. 2010. "The Meanings of Genre Classificat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The Cas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51-170.